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한 제언



사무총장 윤 달 상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이하 “농기협”이라 한다)가 설립된 지 올해로 51년째 되는 해이다. 작년에 5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대통령의 축하 영상메세지도 있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도 하였다.

첫째,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창조적인 농업의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것이며,

둘째, 국민농업운동을 제 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셋째, 통일회원제도의 이념을 계승, 평화적 통일을 대비한 북한 농업연구와 농업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넷째, 도시민과 농어민의 산업연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농교류사업 활성화에 더욱 충실히 하며, 선배님들이 쌓아올린 반세기의 농심탑을 더욱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등의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는 17대 임원진이 출범한 첫해로써 위의 과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느냐에 따라, 우리 농기협이 과거의 찬란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 1인당 GDP가 24,000불, 세계 33위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우리 농기협은 1963년 10월 10일에 설립되었으나, 실은 그 이전인 1960년 10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제 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만 해도 6·25전쟁의 폐허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정말 우리민족의 앞날이 암울하던 시절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대통령 선거 구호 중에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였을까? 당시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불 내외로 아프리카의 케냐,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필리핀은 약 300불 정도로 우리보다 4배 정도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것을 여러 통계자료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우리처럼 못살다 우리만큼 잘살게 된 나라! 고도로 압축성장한 나라는 없다. 반세기만에 무역규모 1조 이상 달성, 세계 8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 61개로 세계 15위! 실로 놀라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 농기협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다. 50년 전 우리 선드농가들이 스스로 굳게 뭉쳐 ① 농민의 정신혁명, ② 농업의 기술혁명, ③ 농촌의



생활혁명을 부르짖으며 함께 일궈온 산물이 아닌가? 선도농가를 포함한 우리 농기협 회원들의 노고야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동안 농기협의 회원은 배출한 교육생을 포함해서 약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연락이 가능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 회원이 없는 협회는 무의미하다. 과거의 열정을 살려 찬란했던 농기협의 명성을 되찾아 올 것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기협의 선도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과거의 자주적 정신으로 적극 참여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지역 연합회나 지회 활동에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농업·농촌을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해 보자. 어려울 때 일수록 선도농가다운 면모와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

둘째, 회원 배가운동에 함께 노력하자. 젊고 능력 있는 신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활동을 안하고 있는 원로회원을 찾아 섬기는 일에 앞장서자. 본회에서 발간하는 정보지 “농업기술회보”와 “다량문자 메시지”를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외에 서비스할 분야도 검토하고 있다.

셋째, 위의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한다. 안정적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GS칼텍스와 제휴하여 만들어 보내드린 GS보너스 카드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용하면서 쌓인 적립금은 결국 지역의 운영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시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듯 선도농가 한분 한분의 참여와 관심이 모여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협회와 회보발간을 위하여 년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은행 1394-01-0005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세요. 02-794-7270)

*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정(연)회원 일 경우, 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동심회비 : 100,000원입니다.

본회의 회원은 통일회원, 동심(평생)회원, 정(연)회원으로 구성됨